목어

TV와 도올

나는 텔리비전을 즐겨보는 편은 아니다. 얻을 것이 있는 프로그램이 적어서라기 보다는 화가 치미는 프로그램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반드시 챙기는 프로그램이 몇 있다. 종합뉴스, 드라마 태조 왕건 그리고 도올의 논어강좌 등이다. 그러나 얼마 전 이 가운데 한 프로그램을 버렸다. 바로 도올의 시간이다.

TV에서 도올과 같은 학자의 시간을 장기기획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실로 획기적인 착안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성격의 프로그램이 이만한 성공을 거두리라고는 누구도 쉽게 짐작하지 못했을 터이다. 많은 이들이 반가워했던 이유는 도올, 그가 불타는 향학열로 두루 섭렵한 석학이며, 그것도 동양학을 전공한 학자인데다 더욱이 대학교수를 내던지고 다시 한의학을 공부할만큼 열려있고 박력있는 지식인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누가 뭐래도 그의 강의는 열강이고 해박하며 메시지를 담고 있어, 매주 그 시간을 기다리곤 했다.

주지하다시피 도올은 크리스천 집안 태생이다. 그럼에도 그는 종교의 벽을 과감히 뛰어넘어 제3의 해법을 제시하는 학자로 여겨져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간 주위에서 그를 폄하하려 해도 나 역시 그를 옹호하며 존경했고 TV속에서나마 열심히 배웠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역시 크리스천들의 그 옹골찬 아집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내면적 광신자임을 보게 되었다. 더욱이 추기경과 함께 자리해 공자를 스스럼없이 크리스천으로 만드는 데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올과 이별한 시청자가 아마도 이 때 엄청나게 많았으리라고 나는 본다. 나는 요즘에야 비로소 이경숙씨의 〈노자를 웃긴 남자〉와 서병후선생의 〈도올에게 던지는 사자후〉를 읽고는 도올의 면모를 더욱 깊게 읽게 되었다.

TV와 도올은 지금도 자신들의 위상과 인기를 빼기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에게 등을 돌린 나 같은 시청자의 숫자도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할 일이다.

도수(정업도량 회주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㊀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잇단 환경분쟁… '초강수' 선택

봉암사 '희양산 보존' 법정대응까닭

경내지 300m 규석광산 등 위치
천연기념물 서식지 훼손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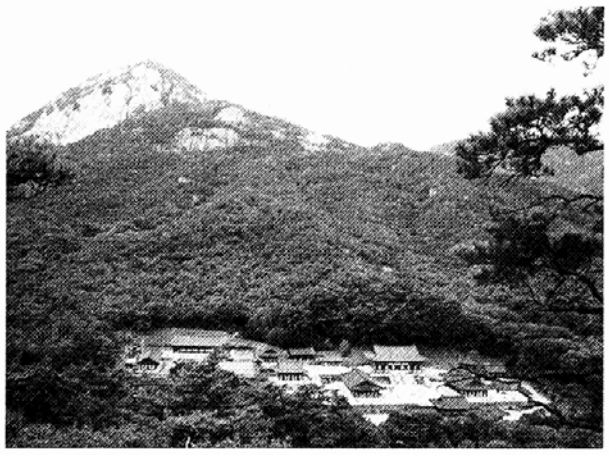
20년간 일반인들은 물론 불자들의 출입까지 통제하며 수행환경을 보존해 온 조계종립 특별선원 문경 봉암사가 최근 수행환경권 수호를 위해 천연보호림과 생태보존지역으로 묶는 법적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봉암사가 희양산과 봉암사 주변을 천연보호림과 생태보존지역으로 묶으려고 하는 것은 지자체의 개발의욕을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꺾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합법적으로 막겠다는 것이어서 새로운 환경운동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사찰이 존재하는 곳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환경보존법에 의거해 사찰주변을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찰들이 관련법에 의거해 주장해온 기존의 전통사찰보존법은 개발의 당사자인 지자체와 협의하여 보존지역 지정을 하는 부담이 있고, 보존지역도 전통건조물보존법이 100m,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로부터 2km 이내에만 보호하는 상황이어서 환경분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생태계보존지역은 멸종위기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야생동물, 희귀식물 서식지에서부터 2km 이내는 건축물 등 개발이 제한되고, 야생동물이나 조류의 경우 서식지가 광범히하게 분포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사찰이 위치한 곳은 대부분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수행환경보존을 위한 이 같은 법적대응은 개발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런 방법들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찰들이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희양산 봉암사. 생태보존지역을 추진해 수행환경 보호를 모색하고 있다.

봉암사는 1990년 초 먹는 샘물 개발계획으로 몸살을 앓기 시작하여,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선 지자체에 의해 완산스키장 건설, 리조트단지 건설, 원경광업소 채석개발, 규석광산 등 끊임없는 수행환경권 침해위협을 받아왔다. 특히 규석광산의 경우는 경내지로부터 300m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문경시는 교계의 반대여론으로 인해 개발계획을 진행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놓여있지만 사업을 변경하고, 투자자가 나설 경우 언제든지 개발사업이 재 추진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봉암사주지 원타스님은 "봉암사 일대를 개발하려는 지자체, 개발업자와 끊임없는 대응과 해결을 모색했지만 사찰과 자연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들의 의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사찰의 수행환경권을 국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승려 노후 복지 미룰 수 없다"

조계종 종회 사회분과위

보고서 · 세미나 준비
대책 마련 본격 논의

승려노후복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종회 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화범)는 5월 29일 5차 회의를 열고 노후에도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승가복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하고 '승려노후복지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8월 중순경 발간할 예정인 보고서에는 조계종의 승려노후복지의 현황과 과제, 다른 종교의 성직자 노후복지 사례를 담는다.

사회분과위원회는 보고서 발간에 이어 세미나를 열어 승려노후복지에 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제도적 장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법어사 왜곡보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집행부에 촉구했다.

승려노후복지 제도의 마련과 시행은 오래 전부터 요청된 사안이다. 96년 총무원에서 승려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 혜택과 의료 및 재해보장을 주내용으로 하는 승려복지 사업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9억4000여만원의 재원 확보가 어려워 보류된 상태로, 종단 차원의 승려노후복지 사업은 없는 실정이다.

사회분과위원회가 승려노후복지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승려의 고령화 추세, 수행과 포교에 전념토록 하기 위한 대안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계종 승려 1만2000여명(사미, 사미니 포함) 가운데 65세 이상의 스님이 9.2%를 차지한다.(60세 이상 스님은 14.1%) 장로를 우대하는 전통을 이어온 불교에 노령화라는 표현은 적합하지만, 세속의 잣대로만 본다면 조계종은 노령화로 접어들었다. (유엔의 기준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비율이 7% 이상이면 노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역시 재원 마련이 승려노후복지의 관건이다. 96년이나 지금이나 재원이 풍족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지금으로서는 연차적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승려노후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확보하고 사찰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로 삼느냐가 과제로 주어진 셈이다.

또 각 교구본사별로 승려노후복지원을 설치하더라도 스님들이 입방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종이 위에 그린 그림에 불과하다. 실제 83년 승려노후복지원설치령 제정 초기 불국사에서 '노승원'이란 승려노후복지시설을 설치했으나, 입방하는 스님의 수가 적어 유명무실해졌다. "노스님을 어른으로 모시는 풍토의 정착이 멀지만 가장 확실한 승려노후복지 정책"이라는 말은 여전히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한편, 99년 조계종 총무원이 조사한 '승가복지에 관한 조사분석'에 따르면, 스님들은 종단에서 승가복지 사업을 위해 해야 할 일로 스님전용병원의 설립(31.3%), 스님수행원(26.8%), 의료보장(17.5%), 노후연금(14.5%) 등의 순서로 꼽았다. 절반이 넘는 스님들이 의료혜택에 대한 절실성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조사에서는 또 응답자의 43.7%의 스님들이 노후와 건강을 염려해 보험과 연금, 적금을 들고 있으며, 38.6%의 스님들은 자활능력이 없어서 생활하기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 포교원은 5월 26일 봉은사에서 '군포교 지원 및 후원단체 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법당없는 부대 불자감소 '불보듯'

군불자복무중개종 '충격'

3사관학교 강대남 법사가 '군포교 지원 및 후원단체 지도자 워크숍'에서 밝힌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 부대의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사병의 계급별 종교 인구를 조사한 결과 개신교의 경우는 542(이병)-1080(일병)-1443(상병)-1441(병장)명이었으며, 불교는 231-505-618-483명 순이었고, 천주교는 108-257-284-2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현황은 병장의 경우 불자 사병이 상병 때보다 130여명 줄어든 반면, 개신교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불자 사병의 종교적 신념이나 신행생활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강 법사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신병교육대 장병 6,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병력대비) 불교인은 20%, 개신교는 33%, 천주교는 9%였고, 무종교인은 38%였다. 무종교인을 제외한 비율(신자대비)로 보면 개신교 53%, 불교 33%, 천주교 14%라는 계산이 나온다.

무종교 사병도 대부분 개신교로

이는 국방부와 기독교 군 선교연합회가 내놓은 군 종교인구 현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곳이 밝힌 종교인구 현황을 보면 불교인구는 병력대비 21%, 신자대비 28.5%이며, 천주교의 경우는 병력대비 11%, 신자대비 15%이다.

이 두 통계를 비교 분석하면 신자대비 비율로 볼 때 신병 때의 33%였던 불자인구가 28.5%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병력대비 비율로 볼 때 신병 때와 그 이후의 불교와 천주교 인구가 각각 1%, 2% 증가한데 그친 것은 불교가 무종교인을 1% 밖에 흡수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나머지 35%는 개신교에 흡수됐음을 보여준다. 즉 무종교인에 대한 포교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강 법사가 실시한 4개 대대 표본 조사에 따르면 지휘관의 종교는 병사들의 종교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당이 없는 부대의 불자인구는 법당이 있는 부대의 불자인구와 비교해 최대 30%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법사의 활동과 지원에 따라 불자인구수를 크게 좌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명우 기자

매일 아침 나무아미타불을 칭명합시다. 한국불교의 전통(傳統)을 이어,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어 갑시다.

제6차 전국 염불만일회 2001년도

설악산 백담사 여름 성지대회 공고

— 매일 나무아미타불을 부릅시다 —

〈설악산 백담사〉

△등공탑-염불만일회 동참하신 서른 한분 스님의 오신 등공부도탑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2000년부터 염불 10대성지를 찾아 작년에 전남 대원사 순례하였고 2001년도는 아래와 같이 강원도 설악산 백담사에서 여름 성지대회를 마련합니다. 마지막 날은 건봉사 등공대 참배합니다. 전국에 계신 염불만일회 회원과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2001년 8월 6일 ~ 8일 (2박 3일)
◇ 장 소 : 강원도 설악산 백담사
◇ 내 용 : 염불정진의 본행사 및 건봉사 등공대 성지순례
◇ 신청대상 : 개인, 사찰, 단체, 가족단위
◇ 참 가 비 : 35,000원(염불조끼, 교재 및 식사제공)
◇ 신청방법 : 전화신청 후 은행계좌에 입금
◇ 교 통 편 : 개인별 설악산 백담사 도착

서울 · 경기지역 출발 안내

○ 출발장소 : 서울 조계사 앞
○ 출발시간 : 2001년 8월 6일(월) 오전 7시
○ 교통편 : 관광버스 (단, 동참자는 참가비 · 교통비 포함 60,000원을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건봉사 성지대회

전국 염불만일회 회원 모집
▶ 회원자격 : 염불수행을 원하는 모든 분
▶ 회원대상 : 사찰, 단체, 개인별로 가입
▶ 회원회비 : 가입비 2만원(매년회비 1만원)
▶ 가입방법 : 전화 및 우편(사무국 : 02)732-1215~6)

회원이 되시면
▶ 아미타불의 수행방법을 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염불만일회 소식을 가정에서 통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염불일일기도 수첩 보내드림)
▶ 전국 대도시별로 회원 관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 평생동안 염불만일회 회원이 됩니다.
▶ 법보신문에 매주 고유번호와 성명이 게재됩니다.

회원가입 은행 입금계좌 (예금주 : 염불만일회)
국민은행:023-21-0667-309 조흥은행:390-04-249351
농 협:053-02-128104 우 체 국:010041-0384727
외 환:173-18-10454-9

全國念佛萬日會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0
☎ (02)732-1215~6 / FAX (02)732-1207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